

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(20년 6월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글로벌 철강시장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

- 5월 글로벌 조강생산은 148.8백만톤으로 전년비 8.7% 감소. 주요국의 조강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, 중국은 전년비 4.2% 증가한 92.3백만톤을 생산해 중국과 그 외 국가간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음
- 금융위기 전후로 중국 조강생산 점유율은 38%에서 47%로 증가. '20.5월 중국의 조강생산 점유율은 62%로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

◆ 철광석 가격 고공행진

- 중국 경제 정상화로 철강수요가 증가한 반면, 브라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철광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6월 철광석 가격은 톤당 \$100을 돌파
- 6월 중순 이후 상승세는 한풀 꺾인 상태이나, 코로나19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가 남아 있어 철강업계의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중국은 안정적인 철광석 수급을 위해 정부차원의 해외자원 개발, 위안화 결제 추진을 통한 가격결정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음

◆ 유럽연합 3차년도 철강세이프가드 개시(7.1)

- EU는 철강 세이프가드 2차 리뷰를 통해 쿼터 운영 방안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 발표. 개정안은 3차년도가 시작되는 7.1일부터 적용될 예정
- 유럽 철강업계는 쿼터물량을 75%까지 줄이고, 연간 쿼터 증량도 현행 3%에서 1%로 줄여야한다고 건의해왔으나,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크게 반발
- ArcerloMittal, Thyssenkrupp, Tata 스틸 등 대형 철강사들이 생산량을 대폭 줄이면서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